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 연구에 관한 종합적 고찰
- 2000-2009년 국내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중심으로 -
Review of Research in Personal Finance: Based on Journal Papers between 2000-2009

최현자(Choe, Hyuncha)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2000-2009) 개인재무관리 분야에서 이루어진 연구를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였다.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에 게재된 논문으로써 개인재무관리관련 주제를 다룬 총 271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분석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5개의 대주제와 12개의 소주제로 주제를 분류하여 〔①재무상태평가(경제구조와 재무상태/재무태도) ②재무설계의 실행(소득과 지출관리/부채와 신용관리/위험관리와 보험/은퇴설계와 상속/저축과 투자관리/재무관리행동 ③재무복지(주관적 재무만족도/객관적 재무만족도) ④재무교육(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기초연구/교육효과분석) ⑤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연구를 수행하였다. 'Personal Finance'는 개인재무관리, 개인재무, 소비자재무 또는 가계재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무설계나 개인재무설계와도 자주 혼용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 Personal Finance에 충실하여 Personal을 개인 및 가계를 포함하는 소비자단위로 간주하여 번역하고, 개인재무 자체가 아니라 이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써 '개인재무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지난 10년 동안의 개인재무관리 분야 연구는 매년 21~34편의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다가 중반이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FPR(Financial Planning Review)의 창간과 더불어 2008년에 다시 증가하였다. 또한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개인재무설계의 실행(69.4%)이며 다음으로 재무상태의 평가(12.5%), 재무복지(7.7%), 재무교육(7.4%),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3.0%)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이나 학설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으며, 주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고, 현장적용의 실천성이 부족하며 대표성 있는 자료의 부족으로 인한 결과의 일반화의 어려움 그리고 특정 주제에 대한 반복적인 연구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실천적이고 현장적용성이 강한 연구와 이론의 개발을 위한 연구의 축적 그리고 행동재무학의 논의에 근거한 새로운 연구주제의 발굴 등을 제안하였다.

주제어: 개인재무관리, 재무상태평가, 재무설계 실행, 재무복지, 재무교육,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최현자 / 서울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hychoe@snu.ac.kr)

Ⅰ. 서 론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는 경제주체 중 가계부문의 재무관리를 다루는 학문영역으로 가계경제학으로부터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소비자학회의 학술지인 「소비자학연구」의 창간호에서 이기춘(1990)은 소비자학의 연구분야를 가계경제분야, 소비자교육분야, 소비자정책분야로 대별하고 가계경제분야의 연구는 단위소비자인 가계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여 소비자복지에 기여한다고 하였다.

가계경제학이란 경제학을 가계행동의 이해에 적용한 응용학문으로 연구대상은 가계의 경제생활이며 연구의 목적은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을 통한 가계의 경제적복지의 향상이다. 여기서 가계의 경제생활이란 가계구성원의 욕구충족을 위해 가계자원을 획득하고 유지하며 발전시키고 사용하는 생활로, 소비와 저축, 투자와 차용 등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가계구성원이 끊임없이 직면하는 가정경제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생활로써, 가정경제문제란 가계자원은 제한되어 있으나 가계구성원의 욕망은 무한하다는 희소성의 문제를 의미한다. 결국 가계경제학은 한정된 가계자원을 가지고 가계구성원의 다양한 욕구를 최대한으로 충족시키기 위해 자원의 선택적 배분을 합리적으로 수행하여 가계의 경제적 복지를 추구하는 응용학문이다(이승신 등 1996).

Schuchardt 등(2006)에 따르면 Personal Finance는 재무학, 자원관리학, 소비자교육학, 사회학과 심리학의 이론과 원리를 적용하여 개인, 가족, 가계가 자신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어떻게 재무자원을 획득하고, 발전시키고, 배분하는가를 연구하는 다학제적인 학문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가계경제학이 가계의 경제활동에 좀 더 초점 맞추어졌다고 하면 개인재무관리는 가계의 경제활동의 결과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차이가 있을 뿐으로 과거의 가계경제학이 개인재무관리로 진화하였다고도 볼 수 있다.

개인재무관리(Personal Finance)에 대한 교육이 국내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 이다. 가계의 운영을 체계화하여 사회의 기반인 소비자 및 가계의 안정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소비자재무설계사를 제도화하면서 소비자재무설계를 주축으로 하는 개인재무관리분야의 교과목이 기존의 가정대학이나 생활과학대학 내의 소비자학전공분야에서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이는 소비자학 분야에서 이미 실시되어 온 개인 소비자 및 가계의 경제복지를 목표로 하는 가계경제분야의 내용이 재무설계에 관한 내용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윤정혜 등 1997). 물론 그 이전부터 개인재무관리를 위한 교육과 연구는 가계의 경제행위와 복지증진에 관심을 가진 연구자(교육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지만 전문인을 배양한다는 차원보다는 생활교육의 하나로서 이루어져 왔으며 1990년대의 연구 또한 가계경제실태조사를 주축으로 이루어진 탐색적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손상희 2000).

그러나 수요측면에서 개인 부문의 소득의 증가에 따른 자산규모의 증가와 수명연장에 따른 노후준비의 필요성 급증, 조기사망, 상해, 질병, 실직 등 개인위험의 증가와 더불어 복잡한 금융공학기법을 적용하여 개발된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저금리 기조에 따른 저축에서 투자로의 전환 움직임 등으로 인해 개인이 스스로 재무적인 의사결정을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또한 공급측면에서 금융기관의 여수신액에서 개인고객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금융시장개방과 규제완화로 인한 경쟁심화로 인해 개인고객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지원체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금융기관의 개인고객서비스에 대

한 인식이 변화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개인재무관리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전문화된 교육을 받은 개인재무관리서비스 전문인력을 요구하게 되었다. 즉 금융기관이 단순한 금융상품 관련 지식에 기반하여 제공하는 고객서비스에서 벗어나 가계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재산내용에 기초하여 가계운용에 대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인 개인재무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면서 이를 담당하는 전문인을 배양하기 위한 형태로 교육이 탈바꿈하였다(최현자 등 2008).

본 연구는 소비자학연구 창간 20년을 기념하면서 앞서 1990년부터 1999년까지의 개인재무관리 분야의 연구를 고찰한 손상희(2000) 연구의 후속 연구로, 교육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연구에서도 시장의 요구를 반영하는 현장적용성이 있는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최근 10년간 국내에서 이루어진 개인재무관리 분야의 연구를 고찰함으로써 연구 성과를 평가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주요 이슈들과 향후 연구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먼저 다음 장에서는 국내에서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Personal Finance'에 대한 용어를 비교 정리하였고, III장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를 고찰한 내용을 정리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분석틀을 마련하였다. IV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정리하고 마지막장에서는 연구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으로 구성되었다.

II. Personal Finance - 개인재무관리

2.1 Personal Finance(개인재무관리)의 개념

개인재무관리는 상대적으로 최근에 주목을 받게 된 영역이다. 1990년 이전에는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연구자들을 가정경제학자, 소비자경제학자, 소비경제학자, 가정자원경영전문가 또는 소비자교육가 등으로 칭하였고 개인재무관리 분야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미국에서조차도 개인재무관리 만을 교육하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대학도 극소수였으며 주류 경제학자나 경영학자들도 개인재무관리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개인재무관리와 관련된 주제에 대해 지식을 창출하고 정보를 발행하며 전문가를 양성하고 연구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생기면서 미국에서 다양한 학회와 학술지가 발행되기 시작하였다(Schuchardt, et al. 2006)[1)]

우리나라에서는 Personal Finance가 개인재무관리, 개인재무, 소비자재무 또는 가계재무라는 용어로 혼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재무설계나 개인재무설계와도 자주 혼용되고 있다. 개인, 가계, 소비자는 결국 연구의 대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학문적으로 기업재무(Corporate Finance)와 대별하면 개인재무(Personal Finance)의 가장 큰 차이는 연구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기업재무분야의 연구대상이 기업이고 개인재무는 그 대상이 개인인 것으로 개인이란 개인, 가족, 가계를 모두 통칭하는

1) Journal of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1989년 창간), Financial Services Review(1991년 창간), Journal of Financial Planning(1979년 창간), Journal of Personal Finance(2002년 창간), Journal of Behavioral Finance(2000년 창간), Journal of Investing(1992년 창간), Journal of Financial Service Professionals(1946년 창간), Journal of Family and Economic Issues(1978년 창간) 등.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소비자학에서는 개인소비자와 단위소비자로서 가계(경제적 의사결정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 소비자로 구분하고 개인과 가계소비자를 소비자단위(consumer unit)라고 칭하기도 한다. Personal Finance가 소비자재무, 가계재무, 개인재무 등 다양한 용어로 일컬어지고 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Campbell(2006)은 Household Finance라는 새로운 용어를 제안하면서 최근에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아직은 Finance에서의 위치가 약한 영역으로 가계가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도구를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해 다루는 영역이라고 하였는데[2] 이는 기존의 Personal Finance와 동질적인 것으로 우리가 개인재무 또는 가계재무라 칭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개인재무관리와 더불어 많이 사용되는 개인재무설계(Persnal Financial Planning)는 개인재무의 적절한 관리를 통해 삶의 목표를 달성해 나가는 과정(process)을 말한다. 국제재무설계표준위원회(Financial Planning Standards Board)에 따르면 개인재무설계는 개인이 자신의 삶의 목표를 파악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가지고 있는 재무적, 비재무적 자원을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개인의 재무를 둘러싼 현금흐름과 소득관리(신용과 부채관리 포함), 세금설계, 위험관리, 투자설계, 노후설계, 상속설계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개인재무관리는 예산수립, 현금관리, 부채관리, 신용관리, 위험관리, 은퇴설계 등 다양하고 복잡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개인재무의 관리과정이 개인재무설계이기 때문에 개인재무관리에서 포함하고 있는 내용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개인재무설계는 재무관리의 과정에 초점이 맞추어진 분야로 개인재무관리의 하위영역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개인재무관리와 개인재무, 소비자재무, 가계재무 중 어떤 용어로 Personal Finance를 규정할 것인가에 대한 합의는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야겠으나 본 연구에서는 원어 Personal Finance에 충실하여 Personal을 개인(개인 및 가계를 포함하는 소비자단위로 간주)으로 번역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개인재무 자체가 아니라 이의 관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개인재무관리'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2.2 개인재무관리의 영역구분[3]

개인재무관리분야는 크게 재무설계, 재무상담 그리고 재무교육으로 나눌 수 있다. 달리 말하면 이들을 아우르는 다학제적인 전문영역이 바로 개인재무관리이다(Schuchardt 등 2006). 위의 세 영역은 모두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며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 전문가로서 필요한 지식이나 기술상의 내용 또한 대동소이하다. 재무설계를 하는 가운데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교육의 효과가 나타나기도 하고 재무교육을 하면서 재무상담이 이루어지기도 하며, 재무상담을 하면서 재무설계로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기 때문에 재무

2) Campbell(2006)은 household finance를 가계가 자신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하는지에 대한 연구인 positive household finance 와 경험이나 직감에 기반한 일반원리와 같은 규범을 강조하는 normative household finance로 구분하고 있다.

3) 본 절은 성영애・양세정・이희숙・차경욱・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며 성영애 등의 연구에서는 주로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을 염두에 두고 개인재무관리 대신 개인재무서비스라고 칭하고 있다.

설계와 상담과 교육을 구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을 혼용하여 사용하기도 한다.[4)]

그러나 재무설계와 재무상담을 엄밀히 구분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갖는다. 즉 재무설계는 현재 또는 미래의 소득, 자산 등 재정자원을 보존시키고 증대하여 소비자 개인과 가계가 기대하는 생활양식에 적합한 재무 목표를 달성해가는 전 생애에 걸친 과정으로 재무목표 달성을 통해 재무상태를 향상시킴으로써 재정적 복지를 실현해 가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재무설계는 미래에 대한 계획으로 재무목표의 설정으로부터 시작하며 현재 당면하고 있는 재무적 문제가 없더라도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재무상담은 문제를 가진 소비자의 문제를 평가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는 작업으로 소비자가 경제적 복지를 달성하도록 하기 위하여 기술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모든 자원을 창조적으로 이용하도록 도와주는 과정으로서 재정위기의 해결, 신용 및 부채관리 등의 주제와 관련된 것이다. 한편 재무교육은 재무문제를 예방하고 재무문제 해결 능력을 계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즉 단기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장기적인 측면에서 주어진 상황에서 재무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문제를 예방하는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적인 것이다.

이렇듯 재무설계와 재무상담, 재무교육은 공통의 목적이 있지만 더불어 각 영역이 추구하는 목적이 다르며 각 서비스를 원하는 대상도 달라지기 때문에 개인재무관리영역에서 모두 중요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세 영역은 대학교육이나 연구의 중요한 영역이 되어야 할 것이다.

Ⅲ. 1980-1990년대의 개인재무관리분야 연구 고찰과 연구분석틀

3.1 1980-1990년대의 개인재무관리분야 연구 고찰

본 장에서는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연구들이 수행되기 이전인 1980년대와 1990년대의 개인재무관리분야 연구들을 고찰한 선행연구들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개인재무관리영역이 구축되기 이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주로 가계경제분야로 분류되었던 연구들을 분석하였다.

소비자학의 외형적인 발전과 더불어 실질적인 사회적인 기여가 있었는지를 소비자학의 연구업적분

〈표 1〉 개인재무관리의 영역

	재무설계	재무상담	재무교육
공동목표	소비자의 재무적 복지 증진		
영역목표	중장기적 재무목표의 달성	단기 재무문제의 해결	재무적 능력 향상과 재무문제예방
효과	재무상태의 향상	재무문제의 완화, 해결 또는 통제	재무관리능력의 향상

출처: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욱,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 p 24.

4) 실제로 미국의 Consumer Credit Counseling Services를 제공하는 단체에서도 신용상담을 Credit Counseling 대신 재무설계(Financial Planning)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

석을 통해 살펴본 송인숙(2000)은 1980년부터 1999년 9월까지 기 발간된 국내 주요학술지에 게재된 소비자학 분야의 모든 연구논문을 분석하였다.[5] 이기춘(1990), 여정성·이기춘(1993) 및 여정성(1995)의 연구와 같이 주제를 가계경제영역과 소비자문제영역으로 나누고 가계경제영역을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과 가계재무 및 상담으로 분류하였으며 다시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은 소비이론, 비목별 소비패턴, 집단별 소비패턴으로 가계재무 및 상담은 재무관리, 재정복지, 재무설계 및 상담으로 소분류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가계경제관련 연구와 소비자문제관련 연구는 약 2:3의 비율로 소비자문제관련 연구가 더 많았으며 가계경제의 하위분류에서는 소비이론과 소비패턴에 대한 연구보다는 가계재무 및 상담에 관한 연구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인숙(2000)에 따르면 1980년-90년대에 이루어진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에 관한 연구는 주로 비목별 또는 집단별 소비패턴에 대한 것으로 소비지출 비목별 패턴이나 영향요인의 규명 또는 특정집단내의 소비지출 분석 및 집단간 소비지출 비교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재무관리와 상담에 관한 연구는 가계의 저축, 부채, 노후준비행동, 지출관리 등과 같은 재무관리연구나 재정상태 평가나 경제적 복지감, 재정문제, 경제적 안정 등 재정복지에 관한 논문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재무설계와 상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980년대 초중반에는 가계경제분야 연구 중 가계재무와 관련된 연구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는데 80년대 중후반으로 가면서 소비행태를 주제로 한 연구의 상대적인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90년대 초반 이후 가계경제관련 연구가 급증하였으며 특히 재무관리와 재정복지에 관한 연구가 괄목할 만 하게 증가하였고 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재무설계 및 상담영역의 연구가 눈에 띄기 시작하였다.

사회적 기여나 실천적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박명희(1999)는 연구의 성과가 일반가정에 적절한 정보와 조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가?와 가족을 주요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여러 정책과 기업활동에 연구결과가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가?로 정하고 소비자학분야의 연구를 분석한 결과

〈표 2〉 1980-90년대 가계경제분야 연구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논문편수
가계경제 (187편)	소비이론 및 소비패턴 (64편)	소비이론	9
		비목별 소비패턴	34
		집단별 소비패턴	21
	가계재무 및 상담 (123편)	재무관리	57
		재정복지	40
		재무설계 및 상담	6

자료: 송인숙(2000), p. 224에서 재구성.

5)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420편.

전체의 11%만이 실천적 성과가 있는 논문으로 분류되었다. 이 기준을 준용하여 송인숙(2000)이 분류한 1980-90년대 가계경제분야에서의 실천적 논문은 주로 가계재무 및 상담에 관한 연구로 이 기간 동안의 총 발표논문(103편) 중 11.7%인 12편이 여기에 해당된다. 주요 연구로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적 기여도 측정(양세정 1999) 가계재무관리 software개발을 위한 연구(박명희, 이승신, 박미혜 1997;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 1998),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문숙재, 김순미 1997), 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김순미, 양정선 1994),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손상희 1995), 신용카드의 자금융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이영호, 임정빈 1997), 소비자재무설계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 1997),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최은숙, 노자경 1991)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소비자학연구의 창간호부터 9권 4호(1998)까지 게재된 논문을 분류하고 분석한 김용준 등(1999)의 연구에서도 소비지출, 소비패턴, 가계복지 등에 관련된 연구(27편, 17.5%)는 소비자의 태도, 선택, 만족(32편, 20.8%) 다음으로 많이 수행되었으나 소비자재무는 90년대 중반 이후 중요하게 부각되기 시작한 새로운 분야로 이 기간 동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8편, 5.2%).

1990년대의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살펴본 손상희(2000)는 재무자원의 획득과 관리 그리고 그 유인으로서의 생활표준과 그 결과로서의 재정복지와 삶의 질에 대한 연구를 포함하여 총 111편의 논문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 주제를 소득획득행동, 재무관리행동, 재정복지, 생활표준과 삶의 질이라는 4개의 중분류 항목을 정하고 이를 다시 11개의 주제로 소분류하였는데 90년대 중반 이후에 나타난 두드러진 특징으로 부채, 저축, 은퇴준비와 주관적 재정복지와 같은 연구가 늘어난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가계의 경제적 복지와 관련된 사회적 현안에 대한 관심과 금융시장의 발달에 따른 세부적인 재무관리행동에의 관심의 증가를 반영 것으로 1999년 재무문제와 대처에 관한 연구가 급증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손상희(2000)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1990년대의 소비자재무 및 복지 영역의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재무관리일반에 관한 연구들은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혹은 재무목표달성도와의 인과관계를 체계론적 관점에서 규명하고자 한 것들이 주를 이루

〈표 3〉 소비자학연구(1990-1998년)에 게재된 가계경제분야 연구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계
가계경제 (37편)	소비지출, 소비패턴, 가계복지	3	2	5	6	2	3	2	2	2	27
	소비자재무		1				2	1	2	2	8
	가계생산, 결혼과 출산, 인적자본						1		1	3	2

자료: 김용준・여정성・하영원(1999), p123에서 재구성

나 이들 연구의 제한점으로 변수의 정의 및 측정방식의 상이함으로 인해 연구결과의 일관적 성과제시가 어렵고 연구들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불필요한 중복연구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이라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여 소비자의 다양한 재무행동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부채, 저축, 은퇴준비 관련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는데 특히 신용사회화에 따른 가계 부채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변화와 더불어 가계의 부채부담, 부채보유 및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차용과 저축과의 관계 등을 규명한 시의적절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한편, 90년대 이전에는 거시적 저축률이나 저축규모의 추이 분석에 집중되었던 저축관련 연구들이 90년대에는 개별가계자료를 이용하여 가계의 저축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저축 및 투자행동 관련 연구들은 개별투자대안의 선택에 관한 지식제공에 머무르고 있고 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을 위한 가계의 자산선택행동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지적하였다. 평균수명의 증가와 조기퇴직이 늘어나면서 은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여 은퇴계획 및 은퇴를 위한 실질적 준비행동(준비실태, 의식, 영향요인)에 대한 탐색적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나 자료의 대표성에 따라 일반화는 제한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한편 가계의 궁극적 목표인 재정복지와 관련된 연구들을 객관적 재정복지와 주관적 재정복지를 측정한 연구들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소득, 지출, 자산구조 등을 중심으로 재정상태를 측정한 연구들과 더불어 재무비율을 활용하여 재정상태를 분석한 연구들이 나타나면서 진일보한 분석방법으로 평가하였으며 경제적 안정도를 지표화하려는 시도들도 수행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객관적 재정복지와 관련된 연구동향을

〈표 4〉 1990년대 가계경제분야 연구 - 소비자재무 및 복지

중분류주제	소분류주제	논문편수	계
소득획득행동	여성취업	8	18
	인적자본투자	9	
	기타	1	
재무관리행동	재무관리일반	10	49
	부채, 저축, 은퇴준비	22	
	재무문제 및 대처	17	
재정복지	객관적 재정복지	13	37
	주관적 재정복지	22	
	기타	2	
생활표준과 삶의 질	생활표준	4	7
	삶의 질	3	
계			111

자료: 손상희(2000), p106에서 재구성

분석하면서 손상희(2000)는 1990년대에는 대표성이 확보된 대우경제연구소의 한국가구패널조사 자료가 가용해지면서 결과에 신뢰성을 확보할 만한 연구들이 다수 수행되었으며 정책적, 교육적 제언제시에 역점을 둔다면 유용할 것이라고 결론지었다.

본 연구와 가장 유사하게 최근에 수행된 연구로 최현자 등(2008)의 개인재무설계분야의 교육 및 연구동향과 실천적 과제연구에서는 재무설계 교과과정안에 포함된 5개의 교과내용과 재무상담 및 교육 영역 등 6개의 영역으로 개인재무설계분야의 하위영역을 세분하고 이를 분석틀로 하여 국내에서 개인재무설계분야의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1997년부터 2007년까지의 개인재무설계 관련 연구를 분석하였다. 이들에 따르면 1997년 이후 2007년까지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가계의 재무상태평가, 재무목표의 설정, 행동계획의 수립 및 실행, 주기적 평가의 과정 및 이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만족여부를 포함하는 재무설계과정으로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수행된 재무설계관련 연구의 29.9%를 차지하고 있었다.

3.2 연구방법 - 연구의 범위 및 분석틀

본 연구에서는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표 5〉 연구주제 및 연구방법에 따른 개인재무설계 관련 연구 (1997-2007)

연구주제	논문수	연구방법			논문수
재무설계과정	60 (29.9)	조사연구	자료조사	가계	28 (13.9)
				주부	32 (15.9)
				노인	7 (3.5)
				성인남녀(대학생포함)	28 (13.9)
				기타	1 (0.5)
소득 및 지출관리	59 (29.4)		원자료	도시가계조사	21 (10.4)
				가구소비실태조사	16 (8.0)
				한국가구패널조사	22 (10.9)
				노동패널조사	12 (5.9)
				기타	16 (8.0)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3 (15)		기타		3 (1.5)
저축과 투자설계	23 (11.4)	문헌연구			15 (7.5)
은퇴설계와 상속	33 (16.4)	면접관찰			0 (0.0)
재무상담과 교육	23 (11.4)	기타			0 (0.0)
합계	201 (100.0)	합계			201 (1000.)

자료: 최현자・성영애・양세정(2008), p.11과 12에서 재구성

「소비자정책·교육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6]에 게재된 논문으로서 개인재무관리관련 주제를 다룬 논문을 대상으로 하였다. 이 논문들 이외에도 개인재무관리관련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지만 위의 7가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들을 국내 개인재무관리분야의 대표적인 논문들로 간주하고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여 총 271편의 논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표 6〉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분석을 위한 분석틀

연구자	본 연구	최현자 외•(2008)	손상희(2000)	송인숙(2000)	김용준 외(1999)
연구대분류	개인재무관리	개인재무설계	소비자재무 및 복지	소비자학	소비자학
주제분류	①재무상태평가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재무태도 ②재무설계의실행 -소득과 지출관리 -부채와 신용관리 -위험관리와 보험 -은퇴설계와 상속 -저축과 투자관리 -재무관리행동 ③ 재무복지 -주관적 재무만족도 -객관적 재무만족도 ④ 재무교육 -교육프로그램개발 및 기초연구 - 교육효과분석 ⑤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① 재무설계과정 ② 소득 및 지출관리 ③ 위험관리와 보험설계 ④ 저축과 투자설계 ⑤ 은퇴설계와 상속 ⑥ 재무상담과 교육	① 소득획득행동(여성취업, 인적자본투자, 기타) ② 재무관리행동(재무관리일반/부채·저축·은퇴준비/재무문제 및 대처) ③ 재정복지(객관적 재정복지/주관적 재정복지/ 기타) ④ 생활표준과 삶의 질(생활표준/ 삶의 질)	① 가계경제(소비이론·비목별 소비패턴·집단별 소비패턴/재무관리·재정복지·재무설계 및 상담) ② 소비자문제	① 가계경제(소비지출·소비패턴·가계복지/소비자재무/가계생산·결혼과 출산·인적자본) ② 소비자보호
연구범위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FPR」,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 271편	1997년부터 2007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에 게재된 논문 201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111편	1980년부터 199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에 게재된 논문 420편	「소비자학연구」창간호(1990)부터 9권4호(1998)까지 게재된 논문 154편

6) 「소비자학연구」는 1990년 창간되어 2010년 5월 현재 20권 1호가 발간되었고 년 4회 발간되고 있다. 개인재무관리관련 학술지로 가장 먼저 창간된 「대한가정학회지」는 1959년에 창간되어 현재 47권 2호(년 10회)가 발간되고 있다. 다음으로 창간된 「한국가정관리학회지」는 1983년에 창간되어 현재 28권 2호(년 6회)가 발간되고 있으며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는 1997년 창간하여 현재 14권 1호(년 4회)가 발간되었다. 「소비문화연구」 는 1998년 창간하여 현재 13권 1호(년 4회)가 발간되었으며 「소비자정책·교육연구」는 2005년 창간되어 현재 6권1호(년 4회)가 발간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 창간한 「Financial Planning Review」는 한국FP학회의 학술지로 2008년 8월 창간하여 현재 3권1호가 발간되었으며 년 2회 발간하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개인재무설계관련 국내연구의 동향을 살펴본 송인숙(2000), 김용준 등(1999), 손상희(2000), 정영숙(2000), 최현자 등(2008)의 주제분류를 고찰하고(〈표 6〉참조) 이들과 본 연구에서 분석정리하여 된 271편에서 자주 거론 되었던 연구주제를 〈표 6〉과 같이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Ⅳ. 2000년대 개인재무관리 연구 고찰

4.1 전반적인 연구 동향

개인재무관리 분야의 연구는 지난 10년 동안 매년 21~34편의 논문이 각종 학술지에 게재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부터 중반까지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가 양적으로 증가하다 중반이후 다소 줄어들었으나 FPR(Financial Planning Review)의 창간과 더불어 2008년에 다시 증가한 모습이다. 지난 10년간 개인재무관리 관련 논문이 가장 많이 게재된 학술지는 한국가정관리학회지이며 다음이 대한가정학회지, 소비자학연구 순서이다. 2000년대 초반에는 특정 학술지에 집중되어 게재되었으나 2000년대 중반이후 새로운 학술지의 창간과 더불어 특정 학술지에의 집중도가 감소되고 있으며 2008년 개인재무관리 전문 학술지라고 할 수 있는 FPR가 창간되면서 2009년에는 개인재무관리관련 연구가 FPR에 집중되어 게재되었다.

4.2 주제별 연구성과의 고찰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주제는 개인재무설계의 실행(69.4%)이며 다음으로 재무상태의 평가(12.5%), 재무복지(7.7%), 재무교육(7.4%),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3.0%)의 순으로 이루어졌다.

소분류를 보면 재무설계의 실행영역에서 소득과 지출관리부문의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주로 다양한 유형의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를 분석하거나 비목별 소비지출행태를 규명한 것들로 비목별 소비지출의 경우 교육비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연구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분석한 연구(박미희, 여정성 2000; 이성림 2002a, 2002b, 2005, 2006; 이승신 2002, 2003; 손상희, 정영숙 2003; 김경자 2007; 허경옥 2007; 박선욱 2008a, 2008b 등)가 가장 많이 수행되었으며 여가비(김영숙 2002; 허은정, 김우성 2003; 구희일, 최석준 2009; 이성림, 김기옥 2009), 경조비(김혜연, 김미성 2001), 교통비(전윤숙, 이희숙 2000; 이희숙 2000), 피복비(이미영 2006), 연료비(김숙향, 황덕순 2002), 식료품비(노민영 등 2006), 주류비(허은정 2003), 의료보험비(김혜연, 홍성희 2001) 등의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등을 파악한 연구들이 있었다. 한편 소비표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주관적생계비나 최저생계비를 계측하거나(김경자 2000; 정영숙 2005), 노인가계의 적정 지출수준의 파악(양정선, 김영순 2004), 가구주의 연령과 직업에 따른 적정소비수준 추정(양연선, 임정빈 2000) 그리고 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한 소비표준 설정을 위한 연구(손상희 2001)들이 수행되었다. 소득과 지출관리 관련 연구는 2000년대 전반에 주로 이루어 졌으며 후반으로 오면서 연구가 차츰 감소하고 있다. 가계의 지출은 재무설계에 있어서 생애자금을 예측하여 재무목표를 설정하거나 행동계획을 수립할 때 꼭 필요한 자료로서 재무설계의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비나 자녀양육비

〈표 7〉 지난 10년간 각 학술지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게재 현황

학회지명 / 연도	소비자학 연구	한국가정 관리학회지	대한가정 학회지	가족자원 경영학회지	소비문화 연구	소비자정책 교육연구	FPR	총논문 편수
2000	5	6	11	4	-	-	-	26
	(19.2)	(23.1)	(42.3)	(15.4)	-	-	-	(100.0)
2001	4	10	7	1	1	-	-	23
	(17.4)	(43.5)	(30.4)	(4.3)	(4.3)	-	-	(100.0)
2002	5	8	10	5	3	-	-	31
	(16.1)	(25.8)	(32.3)	(16.1)	(9.7)	-	-	(100.0)
2003	3	10	9	3	3	-	-	28
	(10.7)	(35.7)	(32.1)	(10.7)	(10.7)	-	-	(100.0)
2004	3	8	11	4	6	-	-	32
	(9.4)	(25.0)	(34.4)	(12.5)	(18.8)	-	-	(100.0)
2005	6	7	5	2	1	-	-	21
	(28.6)	(33.3)	(23.8)	(9.5)	(4.8)	-	-	(100.0)
2006	4	7	6	1	1	4	-	23
	(17.4)	(30.4)	(26.1)	(4.3)	(4.3)	(17.4)	-	(100.0)
2007	4	7	4	6	2	2	-	25
	(16.0)	(28.0)	(16.0)	(24.0)	(8.0)	(8.0)	-	(100.0)
2008	6	9	1	2	3	7	6	34
	(17.6)	(26.5)	(2.9)	(5.9)	(8.8)	(20.6)	(17.6)	(100.0)
2009	4	2	2	5	3	3	9	28
	(14.3)	(7.1)	(7.1)	(17.9)	(10.7)	(10.7)	(32.1)	(100.0)
총논문 편수	44	74	66	33	23	16	15	271
	16.2	(27.3)	(24.4)	(12.2)	(8.5)	(5.9)	(5.5)	(100.0)

마련은 주요 재무설계영역으로 허경옥(2007), 이성림(2006, 2007), 박선욱(2008b)의 연구는 재무설계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연구사례들이다.

다음으로 많이 이루어진 연구주제는 재무설계의 실행영역의 은퇴설계와 상속으로 전체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17%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득과 지출관리 연구와는 달리 2000년대 후반에 더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 은퇴설계관련 연구들은 주로 은퇴(노후)준비 실태와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들과 은퇴소비수준과 소득원천 등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특히 여윤경(2002, 2006, 2007)이나 홍성희(2004, 2006, 2007), 차경욱(2008, 2009) 등은 은퇴설계를 주제로 한 수편의 논문을 지속적

으로 발표하고 있어 한 가지 주제에 대한 연구의 축적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주로 이론적인 틀 없이 실증 연구를 수행한 것과는 달리 여윤경(2002, 2006)은 이론적인 틀로 생애주기 가설에 근거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여윤경의 2002년 연구를 보면 가계지출함수를 통해 가계에 적절한 목표소득대체율을 추정하였으며 그 결과 부부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은 82.4%, 독신가계는 이 보다 조금 높은 85.1%라고 하였다. 이와는 조금 다른 결과로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를 한 최현자 등(2008)은 우리나라 근로자 가계의 목표소득대체율을 62%로 추정하고 이러한 목표소득대체율을 달성하기 위해 은퇴직전소득의 21%가 추가로 필요함을 밝힌바 있다. 목표소득대체율은 각 가계가 은퇴후 생활비를 예측하기 어려울 때 대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 위와 같이 연구자마다 결과가 다른 점을 감안 할 때 각기 다른 가계의 특성을 반영하여 좀 더 정확한 목표소득대체율을 산정할 수 있는 후속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은퇴설계와 상속 관련 연구의 약 1/4은 상속(증여)과 관련된 연구들로 중·노년기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경제적 자원이전 행태(이전시기, 이전여부, 이전액, 이전기준 등)와 상속동기나 상속의식 또는 상속행동을 다룬 연구들이다.

신용과 부채도 많이 다루어진 주제이다. 특히 2000년대 후반에는 다중연체자와 관련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는데 누가 다중연체자인가를 밝히고 이들의 다양한 특징을 분석한 연구들(김미라, 김혜선 2008; 김미라, 황덕순 2008)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의 특성(성영애 2008; 성영애, 정희영 2008)과 신용회복과정에서 채무조정과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를 밝히고자 하는 연구(최현자, 조혜진 2008)도 수행되었다. 한편 신용 및 부채 사용행동에 대한 연구도 다수 수행되었는데 이들은 신용사용여부(부채보유여부)나 부채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한 연구들(김경자 2000; 성영애, 최현자 2000; 정순희 2003; 성영애 2007)이다. 신용카드사용과 관련된 연구들은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사용행동이나 연체행동을 다루고 있다(김영신 2004, 2005; 김창미, 김영신 2005). 신용과 부채관련 연구에서 특징적인 것은 재무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부채부담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지표와 준거기준을 설정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었으며(채은석, 성영애 2000; 최현자, 2001) 소비자파산이나 신용회복지원제도 등과 같이 가계의 채무관련 문제와 관련된 제도에 대한 태도, 국제비교, 정책기초자료에 대한 연구(이영희, 이승신 2006; 허경옥 2000; 성영애 2006; 이은영 2008)가 수행되었다는 점이다. 기존의 연구가 부채보유여부나 총부채액, 유형별 부채보유여부 및 부채부담과 관련된 요인을 규명하는데 초점이 맞추어진데 비해 채은석과 성영애(2000)는 가계에 주관적으로 부담을 가중시키는 객관적인 부채부담 포인트를 추정하므로 서 부채관련기준의 설정을 시도하였으며 최현자(2001)도 가계의 경제구조를 왜곡시키는 부채부담의 상한선을 25%로 설정하는 등 부채관리에 필요한 준거기준을 제시했다는데 의의가 있는 연구들이다.

신용과 부채와 함께 많이 다루어진 연구주제는 경제구조와 재무상태에 관한 연구들이다. 재무상태의 평가는 재무설계과정의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주로 2000년대 전반에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구들은 이들을 주로 객관적복지수준에 관한 연구들로 분류하였으나 이들은 그동안의 다양한 경제활동의 결과로 한편으로는 현재의 객관적 복지수준을 나타냄과 동시에 현재의 재정상

태를 말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가계의 경제구조와 재무상태에 대한 연구는 주로 객관적인 경제적 복지를 측정하기 위해 주로 사용되어 온 척도인 소득이나 소비수준 자산수준이나 구성(포트폴리오)를 분석한 것으로 가계의 경제적 복지의 구성요소인 복지의 적정성, 항상성(또는 안정성) 그리고 평등성 측면 중 복지의 적정성(소득이나 소비수준)이나 안정성(자산)을 다루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한편 1990년대 후반 이후 가계의 전반적인 재무상태를 나타내 주는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과 같은 가계 경제 요소를 결합하여 산출한 재무비율을 이용하여 재무상태를 평가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양정선 1997; 최윤지, 최현자 1999) 이들은 미국에서 개발된 재무비율의 종류나 준거기준을 적용한 것이다. 하지만 금융시장환경도 상이하고 주택마련과 자녀교육을 주요 재무목표로 하는 우리 나라 가계의 재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할 때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재무상태 평가지표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고 우리나라 가계의 재무상태를 평가하는데 적합한 지표와 준거기준을 개발하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최현자 등 2003) 이후 이를 기준으로 가계의 재정상태를 분석하고 평가하거나 평가지표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등의 후속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성영애 등 2004; 이희숙 등 2004; 김민정, 최현자 2007; 유우정, 배미경 2007)

저축과 투자에 관한 연구는 2000년대 이루어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의 약 10%를 차지하는데 저축관련 연구가 약 1/3을 투자관련 연구가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저축관련 연구는 2000년대 초반에 그리고 투자관련 연구는 2000년대 후반에 많이 이루어졌는데 특히 FPR에 집중적으로 게재되었다. 2000년대 초반의 투자관련 연구는 포트폴리오 구성이나 주식투자 또는 인적자본에의 투자와 관련된 것들이나 2000년대 후반에 들면서 투자위험에 대한 태도, 인지, 위험수용성향 등에 관한 연구(길재욱 등 2008; Grable 등 2009; 조혜진, 최현자 2009)와 간접투자를 주제로 한 연구들(성영애, 주소현, 최현자 2009; 송영출 2009; 주소현 등 2009)이 수행되기 시작하였다. 저축과 관련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재무관리행동에 관한 연구는 체계론에 근거한 재무관리행동 연구와 용돈관리(김효정 2001; 이은희, 남수정 2004; 김효정 2004)나 소득관리(윤정혜, 송현주 2009) 그리고 가계수지의 균형을 위한 관리행동을 다룬 연구(성영애 2008)를 포함하고 있다.

한편 재무교육에 대한 연구는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를 위한 기초연구들과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2000년대 후반에 더 많이 이루어졌다.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아동이나 청소년, 대학생 등의 화폐관리나 부채관리, 신용관리 교육이 주 내용이며(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2001; 김나연, 이기춘 2006; 김시월 2007) 노인이나 농촌여성 등 특수계층의 재무관리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한 연구들도 있었다(최윤지, 최현자 2004; 손주영 2006). 한편 기존의 교육과정(초·중·고교과과정 중 금융소비자교육내용, 생활경제교과, 학교 외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 온라인 어린이 금융교육 웹사이트)을 분석하고 향후 교육에의 제언점을 제시한 연구들(최남숙, 백은영 2004; 최현자, 최은진 2005; 박명숙 등 2006; 최은진, 최현자 2006; 고순화, 차경욱 2008)도 다수 수행되었다. 교육효과를 분석한 연구들로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재무교육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백은영 등 2004)가 있으며 안창희·정순희(2006)는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개인재무교육의 효과를 입

〈표 8〉 지난 10년간 각 주제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주제	소분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0-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05-2009	총논문수	총논문수
재무상태평가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1 (3.8)	4 (17.4)	6 (19.4)	4 (14.3)	4 (12.5)	19 (61.3)	3 (14.3)	1 (4.3)	3 (12.0)	2 (5.9)	3 (10.7)	12 (38.7)	31 (11.4)	34 (12.5)
	재무태도	- -	1 (4.3)	1 (3.2)	- -	- -	2 (66.7)	- -	- -	1 (4.0)	- -	- -	1 (33.3)	3 (1.1)	
재무설계의 실행	소득과 지출관리	12 (46.2)	4 (17.4)	7 (22.6)	10 (35.7)	4 (12.5)	37 (62.7)	3 (14.3)	5 (21.7)	6 (24.0)	4 (11.8)	4 (14.3	22 (37.3)	59 (21.8)	188 (69.4)
	신용과 부채	4 (15.4	2 (8.7)	2 (6.5)	2 (7.1)	2 (6.3)	12 (38.7)	5 (23.8)	3 (13.0)	2 (8.0)	8 (23.5)	1 (3.6)	19 (61.3)	31 (11.4)	
	저축과 투자	2 (7.7)	- -	3 (9.7)	5 (17.9)	3 (9.4)	13 (46.4)	1 (4.8)	1 (4.3)	2 (8.0)	3 (8.8)	8 (28.6)	15 (53.6)	28 (10.3)	
	위험관리와 보험	- -	- -	- -	2 (7.1)	1 (3.1)	3 (50)	2 (9.5)	- -	- -	- -	1 (3.6)	3 (50.0)	6 (2.2)	
	은퇴설계와 상속	2 (7.7)	3 (13.0)	7 (22.6)	1 (3.6)	4 (12.5)	17 (37.0)	3 (14.3)	4 (17.4)	6 (24.0)	9 (26.5)	7 (25.0)	29 (63.0)	46 (17.0)	
	재무관리 행동	1 (3.8)	1 (4.3)	3 (9.7)	1 (3.6)	4 (12.5)	10 (55.6)	1 (4.8)	1 (4.3)	2 (8.0)	1 (2.9)	3 (10.7)	8 (44.4)	18 (6.6)	
재무복지	주관적 재무복지	2 (7.7)	2 (8.7)	2 (6.5)	2 (7.1)	2 (6.3)	10 (62.5)	2 (9.5)	1 (4.3)	1 (4.0)	2 (5.9)	- -	6 (37.5)	16 (5.9)	21 (7.7)
	객관적재무복지	- -	1 (4.3)	- -	- -	2 (6.3)	3 (60.0)	- -	1 (4.3)	- -	1 (2.9)	- -	2 (40.0)	5 (1.8)	
재무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1 (3.8)	3 (13.0)	- -	- -	3 (9.4)	7 (41.2)	1 (4.8)	5 (21.7)	2 (8.0)	2 (5.9)	- -	10 (58.8)	17 (6.3)	20 (7.4)
	교육효과분석	- -	- -	- -	- -	1 (3.1)	1 (33.3)	- -	1 (4.3)	- -	- -	1 (3.6)	2 (66.7)	3 (1.1)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1 (3.8)	2 (8.7)	- -	1 (3.6)	2 (6.3)	6 (75.0)	- -	- -	- -	2 (5.9)	- -	2 (25.0)	8 (3.0)	8 (3.0)
합계		26 (100.0)	23 (100.0)	31 (100.0)	28 (100.0)	32 (100.0)	140 (51.7)	21 (100.0)	23 (100.0)	25 (100.0)	34 (100.0)	28 (100.0)	131 (48.3)	271 (100.0)	271 (100.0)

증하였고 이들은 최근 후속연구(2009)로 자산수준별로 재무교육이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와 재무행동에 미치는 연구를 통해 재무교육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한편 주소현(2008)은 재무교육의 일환인 직장에서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종업원 재무교육이 은퇴준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미국의 Retirement Confidence Survey 자료를 이용해서 살펴보았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던 연구영역으로 우리나라의 자료가 구축될 경우 종업원 재무교육의 당위성과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주제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2000년대에도 여전히 상대적으로 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분야가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분야이다. 재무상담의 경우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서비스를 연구한 손상희(2004)의 연구와 인터넷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개발에 관한 연구(김경자 2001) 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소분류에서 보면 교육효과분석과 재무태도, 그리고 위험관리와 보험에 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데 보험과 관련된 논문은 지난 10년간 4편이 이루어져(백은영, 정순희 2005; 김경자 2003, 2005; 박인섭, 이성효 2009) 좀 더 활발한 연구가 필요한 분야이다.

Ⅴ. 개인재무관리 연구의 문제점과 향후과제

사회현안과 관련된 실무적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교육 및 연구의 양적 증가가 이루어졌으며 질적인 측면에서도 연구 성과들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해 볼 때 개인재무관리분야 연구의 도약을 위해서는 몇 가지 선결해야 하는 과제들이 있다.

먼저, 학문의 역사를 가정학으로 거슬러 올라가게 되는 개인재무관리는 가정학의 실천과학, 응용과학적인 특성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어 대부분의 연구가 이론이나 학설보다는 경험적 연구에 집중되어 있다. 지난 수 십년간 연구의 양적인 성과가 있었지만 연구 성과들이 이론적인 체계성을 가지고 이론을 구축하기에는 한계를 여전히 지니고 있다. 이는 10년 전인 2000년 박명희(200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앞으로는 가설이나 이론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의 축적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개인재무관리분야의 학문의 특성상 현장적용의 실천성이 부각되는 학문영역이나 실제로 학계의 연구 성과들이 현장에 반영될 수 있는 연결고리가 부재함을 지적되고 있으나 여전히 이 부분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Schuchardt 등(2007)도 소비자가 정보에 기반한 생산적인 재무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갖추게 한다는 궁극적인 목표를 염두에 두고 다학제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되리라고 생각된다. 예로서, 최근 금융역량의 강화를 위한 재무교육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재무교육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재무교육의 효과에 대한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따라서 내실있고 다양한 피교육자의 요구에 부응하는 재무교육프로그램의 마련을 위한 기초연구와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그리고 재무교육의 효과를 입증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이미 손상희(2000)의 연구에서도 지적된 바 같이 그동안 진행된 많은 연구들이 사회적 현안에 관심을 두고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주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또한 실천적 성과로 연결된 연구가 부족하며

특정주제에 대해서는 연구가 중복되어 수행되고 있으나 연구간의 체계적 연결이 약하고 축적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구의 연속성이 부족하였다. 박명희(2000) 또한 이를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는데 향후 연구방향으로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연구목적과 유용성을 심도 있게 평가해야 하며 실천적 연구가 현장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정책적 제안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연구결과의 현장시사점과 정책적 시사점을 염두에 둔 실용적인 연구가 좀 더 활성화되고 연구자의 연구주제에 대한 관심을 지속시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만을 달리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복적인 연구들은 과감히 지양하고 새로운 연구주제의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각기 다른 가계의 다면적인 특성을 고려한 행동재무학의 논의를 도입하고 이를 우리나라 개인의 재무행동에 적용하는 연구들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미국의 경우 위험감수성향(Risk Tolerance)에 관한 연구가 최근 다수 이루어지고 있으며(Joo 2006) 이에 대한 이해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새로운 연구주제로 고려해 봄직하다. 재무설계나 재무교육의 은퇴설계나 종업원복지에 미치는 효과를 검증하는 연구들을 통해 고용주가 재무설계나 재무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축적도 필요하다.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인 재무상담 영역과 위험관리에 대한 연구도 추가로 발굴해 나가야 하는 연구주제가 될 것이다

〈논문접수일: 2010. 06. 02〉
〈1차수정본접수일: 2010. 06. 17〉
〈게재확정일: 2010. 06. 17〉

참고문헌

2000년부터 2009년까지 발행된 **소비자학연구, 대한가정학회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소비문화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에 게재된 논문 271편.

고순화, 차경욱(2008), "학교 외 금융소비자교육 프로그램 내용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4), 61-80.

곽인숙, 홍성희, 이경희(2007), "남성 직장인의 은퇴계획 유형과 경제적 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21-42.

구희일, 최석준(2009), "가구특성에 따른 가계의 여가소비 지출 분석," **소비문화연구**, 12(1), 25-49.

길재욱, 박영석, 이재현, 박성호(2008), "개인투자자의 투자행태와 위험에 대한 인식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9-46.

김경자(2000), "라이덴 방식에 의한 주관적 생계비와 그 영향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43-52.

김경자(2000), "우리 나라 소비자신용의 이용실태와 합리화 방안," **대한가정학회지**, 38(2), 79-89.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6), 207-220.

김경자(2003), "가계특성에 따른 재무위험 인지와 보험료 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6), 43-51.

김경자(2005), "인터넷 보험에 대한 소비자태도와 수용성향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6), 133-144.

김경자(2007), "가구주 교육수준에 따른 자녀 교육비 지출액과 지출구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6), 111-120.

김나연, 이기춘(2001), "체제적 교수설계를 적용한 소비자교육 프로그램 개발과정 연구 - 대학생 소비자 신용교육을 중심으로,"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 (1), 119-146.

김미라, 김혜선(2008), "30대 기혼 채무 불이행자의 특성

에 관한 심층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3), 169-189.
김미라, 황덕순(2008), "개인회생 채무자의 경제적·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5), 109-127.
김민정, 최현자(2007),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의 타당성 검토," **소비자학연구**, 18(3), 87-110.
김숙향, 황덕순(2002), "가계소득계층별 가계소득변화와 휘발유가격변화가 승용차 연료비 지출액과 지출비율에 미치는 연구," **소비문화연구**, 5(1), 1-13.
김순미, 양정선(1994), "재무관리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32(5), 45-54.
김순미, 홍성희, 김혜연, 김성희(2004), "봉급생활자의 은퇴설계: 노인 부양으로서 유료노인시설 선호 및 요구도," **대한가정학회지**, 42(5), 175-192.
김시월(2007), "청소년소비자의 온라인 신용소비자교육 활성화 및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한.일 청소년소비자의 비교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3), 169-185.
김연주, 차경욱(2008), "완전은퇴와 부분은퇴 집단의 특성 비교 및 결정요인 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3), 59-80.
김영숙(2002), "성인 소비자의 여가비지출과 여가만족도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5(2), 129-158.
김용준, 여정성, 하영원(1999), "「소비자학연구」지 게재논문 분류와 분석 - 창간호(1990)부터 9권 4호(1998)까지," **소비자학연구**, 10(2), 113-131.
김혜연, 김미성(2001), "경조비에 대한 의식 및 지출 변화 - IMF경제위기 이후 제주지역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 65-80.
김혜연, 홍성희(2001), "미국 근로자 가계의 의료보험지출과 영향요인," **대한가정학회지**, 39(3), 93-105.
김효정(2001), "아동의 용돈관리에 관한 연구 - 김해시 초등학교 4,5,6학년을 대상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10), 125-140.
김효정(2004), "아동소비자의 용돈관리행동과 구매행동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2(8), 77-93.
노민영, 심재은, 정효지, 이인희, 류정순, 백희영(2006), "2001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이용한 빈곤층 가구의 식료품비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4(8), 79-87.
문숙재, 김순미(1997), "은퇴준비를 위한 재무계획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기초연구- 가족생활주기적 관점에서 재정복지실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5), 1-15.
박명숙, 유현정, 김인숙, 김혜선(2006), "고등학교 생활경제교과의 운영실태 및 효율적 개선방안,"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41-60.
박명희(2000), "가정관리 분야연구의 사회적 기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185-201.
박명희, 이승신, 박미혜(1997), "가계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1)- 가계부 내용분석과 가계재무관리 실태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5(1), 85-98.
박명희, 이승신, 배미경(1998), "가계재무관리 software 개발을 위한 연구(2)," **대한가정학회지**, 36(2), 131-144.
박미연, 차경욱(2008),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17.
박미희, 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및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2), 189-206.
박선욱(2008a), "미국 편모가계의 자녀보육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6(1), 87-101.
박선욱(2008b), "미취학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보육비 지출실태와 영향요인," **소비문화연구**, 11(2), 197-213.
박인섭, 이성효(2009), "개인투자자의 보험상품 선택에 관한 실증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89-115.
백은영, 배미경, 이승신(2004), "재무교육이 미국 대학생들의 주관적 재정관리 행동문제 인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2(8), 219-233.
백은영, 정순희(2005), "저축성 보험 보유 및 보유액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217-230.
성영애(2006), "패널자료를 이용한 가계부채변동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7(4), 39-60.
성영애(2008), "가계신용관련 정책 기초자료를 위한 가계부채의 지역 간 비교분석," **소비자정책교육연구**, 2(1), 83-100.
성영애(2008), "신용회복지원제도 이용자의 특성과 재무상태 분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신청자를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6), 35-50.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2001), "아동소비자의 화폐관리교육 프로그램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1), 111-129.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4), "가계재무상태 평가지표를 이용한 가계유형의 분석," **소비자학연구,** 15(3), 155-171.
성영애, 양세정, 이희숙, 차경욱, 최현자(2006), "소비자재무설계 및 상담 교과과정의 발전적 운영을 위한 小考," **소비자정책교육연구**, 1(2), 21-39.
성영애, 정희영(2008),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의 분석: 연체미경험자와의 비교," **소비자학연구**, 19(4), 65-82.
성영애, 주소현, 최현자(2009), "가계의 간접투자자산 투자현황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20(4), 215-238.
성영애, 최현자(2000), "유형별 부채의 보유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2), 65-77.
손상희(1995), "부채농가의 경제적 대처행동-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3), 133-143.
손상희(2000), "소비자재무 및 복지 연구의 성과와 과제," **소비자학연구**, 11(2), 103-121.
손상희(2001), "한국가계의 소비수준 및 표준:지속가능한 생활양식의 실현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59-277.
손상희(2004), "미국의 소비자재무상담서비스 연구," **소비문화연구**, 7(4), 101-125.
손상희, 정영숙(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1), 49-60.
손주영(2006), "노인 재무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실시," **가족자원경영학회지**, 10(4), 125-143.
송영출(2009), "적립식 투자는 거치식 투자보다 우월한 성과를 내는가?,"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45-73.
송인숙(2000), "1980년대와 90년대의 소비자학분야 연구의 추이와 사회적 기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1), 217-229.
안창희, 정순희(2006), "개인재무교육이 재무행동 및 객관적 경제복지에 미치는 영향," **소비자학연구**, 17(2), 197-219.
안창희, 정순희(2009), "자산수준별 재무교육이 재무행동과 주관적/객관적 재무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21-41.
양세정(1999), "주부취업의 가계경제적 기여도 측정," **대한가정학회지**, 37(3), 27-42.
양연선, 임정빈(2000), "가구주 연령과 직업에 따른 가계의 적정소비선,"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3), 53-70.
양정선, 김영순(2004), "노인가계의 지출적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5), 283-292.
여윤경(2002), "목표 소득대체율을 통한 은퇴소비의 추정," **대한가정학회지**, 40(3), 83-97.
여윤경(2006), "역모기지의 노후소득 효과," 소비자학연구, 17(1), 177-197.
여윤경, 정순회, 문숙재(2007), "한국가계의 은퇴준비에 관한 연구 - 중산층 가계의 주관적 은퇴 준비 충분성을 중심으로," **소비문화연구**, 10(3), 129-155.
여정성, 이기춘(1993), "소비자학 분야의 대학교과과정 개발에 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0(1), 1-12.
유우정, 배미경(2007), "재정비율을 이용한 노인가계의 재정상태 평가," **대한가정학회지**, 45(4), 17--28.
윤정혜, 김경자, 성영애, 손상희, 양세정, 이희숙, 최현자(2001), "소비자재무설계, 상담,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연구방향," **소비자학연구**, 12(3), 89-108.

윤정혜, 손상희, 김경자, 성영애(1997), “소비자재무설계사의 제도화 방안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8(1), 133-146.

윤정혜, 송현주(2009), “외환위기 이후 가구구조의 종사상 지위 변화유형이 가계소득증감여부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47(1), 109-122.

이기춘(1990), “소비자학연구의 과제와 전망,” **소비자학연구**, 1(1), 1-8.

이미영(2006), “ 90년대 이후 도시가계 피복비 지출 패턴의 구조적 변화,” **대한가정학회지**, 44(6), 163-174.

이성림(2002a),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관한 시계열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40(7), 101-118.

이성림(2002b), “가계의 소득계층별 사교육비 지출 불평등,” **대한가정학회지**, 40(9), 143-159.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3), 63-76.

이성림(2006), “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연구**, 17(2), 115-132.

이성림, 김기옥(2009), “우리나라 독신가구의 여가활동 소비지출패턴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2(3), 105-123.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40(7), 211-227.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41(11), 151-169.

이영호, 임정빈(1997), “신용카드의 자금융통성 사용목적과 가계관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창간호.

이영희, 이승신(2006), “신용불량자의 신용불량구제정책에 관한 인지도, 기대도, 활용도,” **대한가정학회지**, 44(3), 1-11.

이은영(2008), “국가별 개인신용회복제도의 비교 및 시사점,”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2), 19-32.

이은희, 남수정(2004), “소비성향에 따른 청소년 소비자 유형별 소비와 용돈관리 실태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2(4), 157-171.

이희숙(2000), “도시근로자 가계의 교통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화: 1985~1998,” **소비자학연구**, 11(3), 15-39.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 최현자(2004), “재무비율로 평가한 우리나라 가계의 재정상태,” **소비문화연구**, 7(3), 59-84.

전윤숙, 이희숙(2000), “도시가계의 교통비 지출 변화: 1985-1998,” **대한가정학회지**, 38(1), 139-154.

정순희(2003), “금융자산수준별 가계부채 분석,”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7(2), 45-57.

정영숙(2005), “빈곤과 최저생계비 측정에 관한 연구 -노인, 모자, 장애인 가구에 대한 비교,” **소비자학연구**, 16(1), 195-207.

정영숙(2002), “은퇴한 노인의 부 및 최적소비와 상속동기,” **소비자학연구**, 13(2), 81-98.

정영숙(1990), “소비지출패턴: 연구동향과 미래전망,” **소비자학연구**, 1(2), 85-101.

조혜진, 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관다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주소현(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73-91.

주소현(2008), “종업원 재무교육과 은퇴설계,” **소비자학연구**, 19(1), 73-91.

주소현, 최현자, 성영애(2009), “우리나라 펀드투자자의 펀드투자 의사결정에 따른 투자행태,” **Financial Planning Review**, 2(1), 75-102.

차경욱, 박미연, 김연주(2008), “ 20, 30대 임금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6(1), 149-163.

차경욱, 김연주(2009), “은퇴유형에 따른 은퇴가계 특성 비교: 전통적 은퇴와 점진적 은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3(4), 95-114.

채은석, 성영애(2000), “부채가계의 객관적 부채부담 지표 및 기준설정을 위한 주관적 부채부담 관련요인 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8(11), 1-12.

최남숙, 백은영(2004), “인터넷을 이용한 어린이 금융교육: 쌍방향 금융교육 웹사이트 현황 분석,” **가족자원경영학회지**, 8(1), 47-60.

최윤지, 최현자(2004), "농촌여성 재무관리 능력향상을 위한 농가 재정상태진단 교육프로그램 개발," **소비문화연구**, 7(4), 65-80.

최은숙, 노자경(1991), "농가의 경제적 복지 측정 및 관련 변수 연구- 경기도 용인, 이천 지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2(1), 13-35.

최은진, 최현자(2006), "7차교육과정의 초.중.고등학교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실업과와 사회과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44(5), 129-142.

최현자(2001), "다기간자원배분양식의 분석을 통한 가계부채부담의 임계수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79-291.

최현자, 성영애, 양세정(2008), "개인재무설계 분야의 교육 및 연구동향과 실천적 과제," **Financial Planning Review**, 1(1), 1-17.

최현자, 이희숙, 양세정, 성영애(2003), "재무비율을 이용한 가계재무상태평가지표개발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4(2), 99-121.

최현자, 조혜진(2008),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1), 25-46.

최현자, 주소현, 김민정, 김정현(2009), "한국의 은퇴준비지수산정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20(3), 189-214.

최현자, 최은진(2005), "초,중,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교육 내용분석 - 교육영역을 중심으로," **소비자학연구**, 16(3), 109-132.

허경옥(2000), "소비자파산제도에 대한 소비자태도 분석," **소비자학연구**, 11(3), 193-217.

허경옥(2007), "측정방법을 활용한 자녀양육비 측정 및 새로운 측정방법 개발," **소비자학연구**, 18(3), 19-42.

허은정(2003), "주류에 대한 도시가계의 구매결정과 지출결정요인," **대한가정학회지**, 41(5), 1-13.

허은정, 김우성(2003), "도시 가계의 레저지출과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4(1), 59-79.

홍성희(2007), "직장인의 퇴직 및 재취업결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자원경영학회지**, 11(2), 1-19.

홍성희, 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1), 193-207.

홍성희, 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준의 인과관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5(2), 155-172.

홍성희, 김순미, 김혜연(2006), "남성 봉급생활자의 은퇴전 생활설계프로그램 - 생활문제 인식 및 대처방안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95-115.

Campbell, J. Y.(2006), "Household Finance," *Journal of Finance,* 61(4), 1553-1604.

John E. Grable, 주소현, 박주영(2009), "위험수용성향의 자가평가오류: 한국과 미국의 비교", **Financial Planning Review**, 2(2), 1-20.

Joo, So-Hyun, "Review of Financial Planning Research in the U.S: 1995-2005," **2006년 금융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Jane Schuchardt, Dorothy C. Bagwell, William C. Bailey, Sharon A DeVaney, John E. Grable, Irene E. Leech, Jean M. Lown, Deanna L. Sharpe, and Jing J. Xiao (2007), "Personal Finance: An Interdisciplinary Profession," *Financial Counselling and Planning,* 18(1), 61-69.

〈부표 1〉 지난 10년간 학술지별 각 주제별 개인재무관리 관련 연구 현황

		소비자학 연구	한국 가정관리 학회지	대한가정 학회지	가족자원 경영 학회지	소비문화 연구	소비자 정책교육 연구	FPR	총 논문수
재무 상태 평가	경제구조와 재무상태	7	12	7	0	2	3	0	31
		22.6	38.7	22.6	0.0	6.5	9.7	0.0	100.0
	재무태도	0	1	1	0	0	1	0	3
		0.0	33.3	33.3	0.0	0.0	33.3	0.0	100.0
재무 설계의 실행	소득과 지출관리	10	15	19	4	9	2	0	59
		16.9	25.4	32.2	6.8	15.3	3.4	0.0	100.0
	신용과 부채	8	7	6	3	4	3	0	31
		25.8	22.6	19.4	9.7	12.9	9.7	0.0	100.0
	저축과 투자	6	2	4	6	2	0	8	28
		21.4	7.1	14.3	21.4	7.1	0.0	28.6	100.0
	위험관리와 보험	0	3	2	0	0	0	1	6
		0.0	50.0	33.3	0.0	0.0	0.0	16.7	100.0
	은퇴설계와 상속	5	14	10	11	1	2	3	46
		10.9	30.4	21.7	23.9	2.2	4.3	6.5	100.0
	재무관리행동	2	6	8	1	1	0	0	18
		11.1	33.3	44.4	5.6	5.6	0.0	0.0	100.0
재무 복지	주관적 재무복지	1	6	5	3	1	1	0	17
		5.9	35.3	29.4	17.6	5.9	5.9	0.0	100.0
	객관적재무복지	2	1	1	0	0	0	0	4
		50.0	25.0	25.0	0.0	0.0	0.0	0.0	100.0
재무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기초연구	2	4	2	4	1	4	0	17
		11.8	23.5	11.8	23.5	5.9	23.5	0.0	100.0
	교육효과분석	1	0	1	0	0	0	1	3
		33.3	0.0	33.3	0.0	0.0	0.0	33.3	100.0
재무설계 및 상담서비스		1	2	0	1	2	0	0	8
		12.5	25.0	0.0	12.5	25.0	0.0	25.0	100.0
합 계		45	73	66	33	23	16	15	271
		16.6	26.9	24.4	12.2	8.5	5.9	5.5	100.0

Review of Research in Personal Finance : Based on Journal Papers between 2000-2009

Hyuncha Choe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researches for personal finance that had been published in Korean journals during last ten years between 2000-2009 and drew some research subjects for further researches. 'Personal Finance' received a lot of attention recently. This terminology has been often used mixed with personal finance management, personal finance, consumer finance, household finance, personal financial planning in Korea. Personal Financial Planning is the process of achieving life goals through appropriate management of personal finance. To interpret the original word of Personal Finance into Korean, this study translated 'Personal' as an individual, which regards each individual person and household as the unit of consumer.

In this study, 271 research papers appeared in 7 academic journals of 「Journal of Consumer Stud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Consumption Culture Association」, 「Consumer Policy and Education Review」, 「Financial Planning Review」 issued from 2000 to 2009 were analyzed. Paper analysis was performed by the subjects including 5 major subjects and 12 minor subejects. Those subjects are ① Assessment of Financial Status(family economic structure and financial condition and financial attitude) ② Practice of Financial Planning(income and expenditure management, debt and credit management, risk management and insurance, retirement and estate planning, saving and investment management, and financial management behavior), ③ Financial Wellness(su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and objective financial satisfaction), ④ Financial Education(development of education program and preliminary

Hyuncha Choe / Professor, Dept.of Consumer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tudy and analysis of education effect) ⑤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

Followings we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For the last ten years, 21~34 personal finance related papers had been published in academic journals per year. The number of personal finance related researches increased from early 2000s to mid 2000s and slightly decreased after mid 2000s. However, it started to increase again owing to the foundation of FPR(Financial Planning Review) in 2008. During the past 10 years, the most frequently covered research subject was Practice of Financial Planning(69.4%) and it was followed by Assessment of Financial Condition(12.5%), Financial Wellness(7.7%), Financial Education (7.4%),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3.0%) in order.

Based on the results, conclusions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First, most researches focused on empirical study rather than theoretical study. Therefore, it would be needed to accumulate studies which could develop hypotheses and theories.

Second, even though personal finance is actually very practical area, the connection between academic and business field is not sufficient. This has been pointed out in several precedent studies, it needs to be improved through future study. Especially, in the field of financial education, developing an education programs that satisfy the needs of consumers and analyzing the effect of financial education are important.

Third, Most of the researches that intended to approach personal finance related social problems are failed to reach practical achievement and only to provide basic information. There were a lot of overlapping researches in specific subjects. Also, systematic connections between studies and continuity based on accumulated study results were both inadequate. Business and policy implications should be covered more deeply.

Finally, for the further studies, researchers should strive to discover new research subjects according to the changes of socio-psycho-economic aspects of consumers and society. For instance, risk tolerance or behavioalr finance are up-and-coming topics in other countries and the studies of financial counseling and risk management are also needed.

Key words: personal finance, assessment of financial status, practice of financial planning, financial wellness, financial education, financial planning and counseling.